



전서영

2004.02.06

✉ seoyeongjeon22@gmail.com ☎ 010-3354-5461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사용자 경험의 빈틈까지 설계하는 지원자 전서영입니다.

여러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앱·웹 디자인 및 리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며, 사용자 흐름과 정보 구조를 중심으로 디자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과 정보가 전달되는 순서, 작은 디테일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작업해왔고, 복잡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습니다.

또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량이 많은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화면 단위의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가 전달하는 경험 전반을 고려하는 BX 디자인 역량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지원 동기 및 목표

지원 동기

취업을 준비하며 여러 디자인 관련 계정을 참고해왔지만, 결과를 나열하거나 단순 홍보 위주의 콘텐츠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로우 계정의 콘텐츠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표현 없이도 정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합격자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취업 과정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스튜디오 로우의 계정을 통해 디자인 취업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참고해왔던 것처럼, 누군가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여 방향

실제 스튜디오 로우의 콘텐츠를 참고하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의 시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어떤 정보에서 도움을 느끼는지 공감하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경험과 학회·학생회 활동을 통해 카드뉴스 제작, 인스타그램 운영, 콘텐츠 정리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튜디오 로우가 유지해온 차분하고 정제된 톤을 고려해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자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